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재해로 인한 긴급 구호금 지원

3월 11일, 일본 센다이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재해로 인한 피해에 '긴급재해 구호금'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를 통해 3월 22일 200만 \$(한화 22,649,000원)을 전달하였다. 협회 임원들의 긴급이사회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에 앞서 이동의 협회장 신부님의 유례없던 대지진과 해일로 슬픔에 빠져있을 일본(성마리아병원 이사장님)에 위로의 편지 글을 전달하였다.

2011년 몽골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답사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김영훈 해외의료봉사 단장 외 4명이 2011 몽골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에서는 ▲SK이노베이션 지원으로 "몽골 다르항 시 신체장애인의 수족 지원 사업" 관련 1차 대상자 선정 및 사이즈 측정, 석고 취형 등 사전 작업 실시 ▲다르항 제1병원에 본 협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원하는 무영등과 스크립대 설치를 위한 수술실 견학 ▲몽골 다르항 정부와의 MOU 체결 갱신 사전 논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 "몽골 다르항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보건시스템 구축" 관련 연중 계획을 협의하고 대상 학교 선정 및 답사 ▲"사랑의 날개 6기" 해외의

료봉사 전체 계획을 협의하고 돌아왔다.

2011년 임상사목세미나 준비모임

본 협회가 주최하고 CMC임상사목연구소가 주관하는 임상사목세미나(7월 7일 개최 예정)를 위해 3월 30일 정무근 신부 외 3명이 모여 주제 선정 및 발제자, 프로그램과 업무 분담 등을 논의하였다. 2차 후속모임은 5월 24일이다.

협회 새 사무국장 부임



협회의 3대 사무국장으로 4월 1일 조한수 마리노(남, 57) 님이 부임하셨다. 조 국장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육국, (재)서울 가톨릭청소년

회, 구립 서초유스센터 관장 및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국 교육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교사회와 만남



"몽골 다르항 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보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초중등보건교과교육연구회(회장 최명옥)'와의 회의가 4월 18일 있었다. 본 협회 사무총장이신 정수교 교수 집무실에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가 보건교사회의 세미나 활동 지원에 '현지 보건인력 발굴 및 양성', '교육 일정과 내용 등 정보 공유', 세미나 콘텐츠에 본 협회가 지원한 신체검사도구 사용법 등 포함 (체지방 비만도측정기, 청진기, 펜라이트, 치아모형, 유리스캔 등)하여 교

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제1차 해외의료봉사 실시



'사랑의 날개 6기' 2011년 해외의료봉사 1차팀이 5월 14일에서 21일까지 몽골 다르항에서 학교보건사업 및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선발대(강영숙 외 4명)는 5월 11일 몽골 다르항으로 출발하였다.

다르항 내 총 30개 학교 중, 2011년에 10개 교, 2012년 10개 교, 2013년 10개 교에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1차에 5개 교 중 16번 학교를 중심으로 총 44개 반 1,258명을 검진하였다.

다르항 제1병원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수족 36명에게 보장구를 착용해 주었는데, 기뻐하며 좋아하는 모습이 감격스럽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외형만이라도 남들과 같음에 사람들은 그저 신기해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에 감탄을 하였다.

안과의 사시수술 14명 및 성형외과의 얼굴 골절 환자, 구순 수술을 8명 실시하였으나 더 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원목분과위원회 '원목자 연수'

예정

본 협회 원목분과위원회에서 '원목자 연수'를 6월 2일에서 3일까지 대전 대철회관에서 전국의 원목사제와 수도자를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피정 및 제43차 총회

신임 회장 조건현 암브로시오(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교수) 선출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4월 2~3일 수지 성모교육원에서 피정 및 제43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회장 고영초 가시미로)가 주관한 이번 피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가톨릭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프란치스코수도회 박장원 신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기도생활, 믿음생활, 그리고 사랑생활을 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에 대해 배웠고,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 대표담당사제인 김평만 신부의 “사랑의 소명과 의료인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주제로 한 두 차례의 강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과 고통을 함께 나누신 십자가의 의미와 성체 성사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소명, 그리고 가톨릭의료인으로서 그 아픔과 사랑을 나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서울대교구 염수정 주교의 집전으로 파견미사가 있었으며 염 주교는 강론에서 가톨릭의사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점심식사를 함께 나눈 후, 1박 2일의 피정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며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성숙한 가톨릭의사로서의 기도생활, 믿음생활, 그리고 사랑생활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피정을 마쳤다. 한편, 이번 피정은 서울대교구의 라파엘



저녁식사 후 야외 산책길을 거닐며 그룹별로 로사리오 기도를 함께 드린 후 개별 고백성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친교의 시간에는 서울대교구에서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들면서 참여 교구 가톨릭의사회의 회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노래 등을 통해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6시 30분부터 야외에 마련된 십자가의 길 예절을 함께 드리고, 성당에 모여 아침기도(성무일도)를 드린 후 아침식사를 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제43차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총회에서는 2010년 업무 및 재무보고가 있었으며, 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는 등 내용의 협회 정관을 개정하였고, 신임 회장으로 조건현 암브로시오(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를, 새로운 감사로 양영철 베드로(광주대교구 가톨릭의사회 회장) 및 고영초 가시미로(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 회장)를 선출하였으며, 2012년 3월 24~25일로 예정된 내년도 피정은 부산교구 가톨릭의사회에서 주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표담당사제인 이동의 신부는 마무리 인사에서 협회의 활동 및 피정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협회 활동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 및 각 교구 가톨릭의사회의 조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가톨릭의사라는 정체성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협회 활동 및 봉사의 실천에 노력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서울대교구 염수정 주교의 집전으로 파견미사가 있었으며 염 주교는 강론에서 가톨릭의사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점심식사를 함께 나눈 후, 1박 2일의 피정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며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성숙한 가톨릭의사로서의 기도생활, 믿음생활, 그리고 사랑생활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피정을 마쳤다. 한편, 이번 피정은 서울대교구의 라파엘

클리닉 봉사자들이 피정 참석자의 등록과 친교의 시간을 위한 음식 및 다과를 정성껏 준비해 주어서, 피정의 원활하고 부드러운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갈매못 성지순례 및 제2차 중앙이사회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 선교회위원회(위원장 김혜정)에서는 4월 9일 토요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갈매못 성지로 상반기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본 협회 중앙이사, 감사 및 증경회장단 총17명이 참석하여 깊어져 가는 사순시기에 순교지에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봄이지만 아직은 바닷바람이 차가 와서 실내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성지를 둘러보았다.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진 멋진 곳이지만 무명의 수많은 이들의 순교지로 우리는 직접 몸으로 그분들을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사 강론에서 신부님께서 “우리 모두 이곳 성지에 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며, 주님 때문에 우리는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이라고 하셨다.”

제2차 중앙이사회도 점심 식사 후 1시간 가량 진행하였다.